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1 월 27 일 (다해)

연중 제 3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성월이 있는 달 첫째주 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늘의 전례 ****

[입당송]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느헤 8,2-4ㄱ.5-6.8-10

[화답송] 시편 19(18),8.9.10.15(◎ 요한 6,63ㄷ 참조)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2독서] 1코린 12,12-30 <또는 12,12-14.27>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오늘의 성가]

입 당	446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
봉 헌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파 견	478번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미 사 전 례

날 짜	1 월 27 일	2 월 3 일	2 월 10 일	2 월 17 일	2 월 24 일	3 월 3 일
전 례 력	연중 제 3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연중 제 4 주일	연중 제 5 주일	연중 제 6 주일	연중 제 7 주일	연중 제 8 주일
해 설	조슬기	김진숙				
제 1 독서	이미애	강일호	Andrew Dickenson • 서연준 글라라 가정	권금자 소피아 가정	권의진 빈첸시오 • 권민숙 젬마 가정	강영길 요셉 • 권향자 마리아 가정
제 2 독서	김태현	김승희				
예물 봉헌	Dickenson 민서,김지유					
복 사	김혜원,정캐롤	강선유,강지유				
친 교	엄종인 요한 가정	설전체친교				

연중 제 3 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19년 해외 원조 주일 담화문

인류는 한 가족, 난민의 여정에 함께합시다

2017 년부터 급속히 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7 년 9 월 27 일 “난민의 여정에 함께합시다”(Share the Journey)라는 주제로 난민들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난민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민은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희망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먼저 그들을 환대하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면서 함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하셨습니다(제 104 차 세계 이민의 날 교황 담화 참조).

2018 년 6 월에 발표된 유엔 난민 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까지 6,850 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났으며, 2017 년 한 해에만 1,620 만 명이 고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는 날마다 44,500 명이 또는 2 초마다 누군가가 고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년 전과 비교하면 난민이 66%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난민과 관련된 통계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반응은 ‘난민들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해와 인식이 아니라 배척과 적대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국내 난민들의 목

소리가 되어 주고 있고,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그들의 권리를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공식 해외 원조 단체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응답 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난민들을 위한 한국 천주교회의 책임을 다하 고자 지난해 2018 년도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에게 난민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 년 한국 천주교회는 총 14 개의 나라(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생계 지원 사업, 아동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의료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그들의 '평화 와 자유를 찾아 나선 목숨을 건 여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난민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적대감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할 악이 있고, 없애야 할 불의가 있으며, 부수어야 할 특권이 있고, 다시 세워야 할 존엄성이 있으며, 심어야 할 가치 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수의 잘못된 침묵 때문에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며 인권이 유린되 고 학대받고 있는 난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반성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이민자들을 위한 제 8 차 세계 사회 포럼에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입시다. 난민들의 삶이 통계의 대상이나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을 때, 그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때는 시간보다 중요하다.'(「복음의 기쁨」, 225 항 참조)는 말씀이, 난민들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재촉합니다. 또한 이러한 혼란 속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고 또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난민들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침묵하거나 외면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럴수록 늘어나는 난민들의 숫자만큼 그들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 년 한 해 한국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들께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난민들과 함께하는 여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태 19,26)라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 년도에 이어 올해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난민과 함께하는 여정'에 한국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 년 1 월 27 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운회** 주교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 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오늘(1월27일)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93년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인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해외 원조 주일 담화문은 주보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 2월2일(토)은 '봉헌 생활의 날'입니다.

■ 전신자 성경필사: 4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록

기간: 2018년 10월부터~2019년 부활까지 **대상:** 전신자

■ 2018년 교무금 정산 및 2019년 교무금 봉투 배부

아직 미납하신 2018년도 교무금 있으시면 납부 해주시고, 2019년 교무금 봉투도 배부중에 있으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레지오: 사제관 보일러교체 기금마련 바자회

오늘 주일 미사후 친교실에서 주문하신것 받아가시고, 추가구매 원하시면 당일구매도 가능하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만두-1봉지, 김치/고기/야채중 택일 : $20, 떡국떡-1봉지 $6
바자회는 순교자들의 모후 레지오팀에서 봉사합니다.

■ St. Paul's 청소 봉사

날 짜	청 소 봉사구역
1월 27일	1구역
2월 10일	2구역

■ 전체친교

오늘 주일미사후 St. Paul's Parish hall에서 전체친교 있습니다. 엄종인 요한 •이현아 아델라 가정에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교실 사용시 주차는 길 맞은편 소방서 주차장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기 사목회의

일시: 1월 27일 전체친교후
장소: St. Paul's Parish hall

■ 설 합동 연미사 봉헌

2월 3일 주일 미사때 세상을 떠난 조상, 친지, 은인들을 위한 합동 연미사가 봉헌됩니다. 연미사 신청서는 성당입구에 있으니, 오늘 1월 27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미사 지향 예물봉투는 미사시작전에 성당입구에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짧은 연도 안내 소책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미사와 함께 짧은 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사후에 전체친교가 Parish hall에서 있습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초축성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을 맞아 우리 공동체에서는 2월 3일 주일미사 중에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쓰일 초를 축성합니다. 미사후 신청하신 가정에서는 초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김영혜 요안나, 우숙자 아녜스
생미사	김경애 헬레나, 서양삼 아벨, 엄종인 요한•이현아 아델라•엄재원 다니엘•엄재이 이르미나 가정, 조아라 안젤라, 조슬기 클레어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 헌금: $ 427
2차 헌금(사제관 보일러 교체기금): $ 1,500
교무금: 강주현(1월), 김국제(1월), 김택수(1월~4월), 박상진(2018년 6월-12월), 정지상(1월), 조원준(1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